

Contents | 목차

02 신년인사 | 법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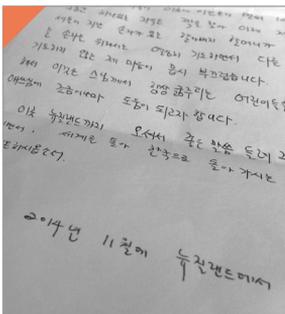
해외소식

- 02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피 인디아! - 박연화
- 05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무나리와 땅밭에서 되짚어 본 JTS의 꿈 - 박영일
- 11 싸바이다, 라오스
새 학교에서의 첫 수업 - 박용대



국내소식

- 16 함께 나누는 사랑
“꿇추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길벗과 함께한 2014년 연말 거리모금 - 성현미
희망을 선물한 춘천 서상초 아이들 - 홍순화
진건 고등학교 기부금 전달식 - 홍순화
철산초 6학년 ‘아나바다’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 임도유
- 16 함께하는 사람들
선린인터넷고 세계시민교육을 마치며 - 수미향
전국 활동가 워크숍, 그 따스한 시간들! - 편집부



활동터소식

- 22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26 후원인의 소리
- 2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패널날 2015. 1.5 패널이 법륜 만민이 박지나, 김기진 패널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JTS 후원회원 여러분! 희망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이라는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해였습니다. 헤어지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나의 아픔 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후원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JTS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피해 복구와 개발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JTS는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구걸을 하던 불가촉천민마을 아이들이 이제는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이바카 자원 봉사자로, 마을리더로 훌륭하게 성장한 수자타 아카데미 20년의 시간이 참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필리핀JTS는 2013년 11월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옌이 휩쓸고 간 사마르섬 마라뿔 지역에서 KOICA와 민관협력 인도적지원사업으로 재난피해 조기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쳐 파손된 교실 80칸을 복구하여 재난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운동장과 담장을 정비하여 마라뿔 학교시설 조기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JTS는 라타나끼리 지역 웅찬, 인, 따농, 똌퐁룽툼, 땅아마을에 5개 학교 건축을 완공하고 교복과 책가방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인접국가인 라오스JTS는 곡농부아 마을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새해 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S는 지난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남북관계의 냉각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후원회원 여러분의 정성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의 을미년 새해에 JTS는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아시아 모든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 문맹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이 세상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에도 후원자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
JTS 이사장 법륜 합장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피 인디아! - 인도에서 배우는 행복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곳 동게스와리 아이들에게 산은 일자로 쪽 그어진 수평선 같은 산 뿐이다. 마을에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셨다고 하는 전정각산이 있는데, 이 산이 한국의 산처럼 둥근 산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를 칼로 싹둑 베어낸 듯 일자로 된 바위산이기 때문이다. 그 산 아래 터를 잡고, 극한의 날씨와 척박한 땅을 벗 삼아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행복을 배운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박연화 활동가

이른 아침 학교가 문을 열면, 해맑은 아이들이 왈자지껄 수자타아카데미로 뛰어 들어온다.

“시스터, 브라더, 풋볼 사이에! 풋볼 사이에!(축구공 주세요!)”



“덩치가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라훌씨와 같이 있기 싫었는데, 막상 일을 함께 해보니 막연한 두려움에 뒷걸음쳤던 내가 우스웠다.”

벌써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변변하게 입을 옷이 없는 아이들은 아직도 맨 다리에 치마 하나를 걸치고, 얇은 셔츠 하나 달랑 입고 학교에 온다. 안개비가 자욱하게 내린 길을 맨발로 걸어서 온 아이들은, 오들오들 추위에 떨다가도 축구공을 이리저리 차며 즐겁고 행복해 한다. 그런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춥다고 오리털 파카에 따뜻한 내복까지 끼입은 채 지금 여기 인도에서 조차 현지인들에 비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어 감사할 줄 몰랐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 여기의 행복을 알 수 있게 해 준 인도 생활은,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지금 수자타아카데미는 개교 기념식 준비로 한창 바쁘다. 하얀 태권도복을 입고 “하나, 둘, 셋, 태권도” 우렁차게 기합을 넣는 씩씩한 아이들, 음악에 맞춰 꼭두각시 율동을 하는 귀여운 아이들, 강강술래 음악에 맞춰 친구들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아이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전체가 살아서 숨을 쉰다.

나는 개교 기념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싯타르타 하우스(기숙사)에 숙소를 준비하는 일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숙소의 시설 점검을 했을 때, 술 냄새를 풍기는 현지인 스텝 라훌씨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순간 싫은 마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을 때, 함께 일하는 활동가가 시설 점검을 같이 안 하냐고 물었다. 순간 당황하여 “나는 술 냄새 나는 남자랑 같이 있기 싫다”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 활동가는 시설 점검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며, 라훌씨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먹은 술 냄새일 뿐이라고 했다. 정말 술에 취했다면 자기가 일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도 했다. 결국 마음을 다시 내어 함께 일을 시작했다.



“그날 따라 심하게 부는 바람에 한껏 날리는 담요의 펄럭임과 함께 옥상에 서 있는 내가, 꼭 리얼리티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져 재미있었다.”

덩치가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라훌씨와 같이 있기 싫었는데, 막상 일을 함께 해보니 막연한 두려움에 뒷걸음쳤던 내가 우스웠다. 숙소의 방 하나를 점검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는데, 긴장감을 풀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라훌씨도 덩달아 콧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일을 하게 됐다. 아주 꼼꼼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라훌씨의 모습을 보니, 아까 있었던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가버리고 고마운 마음만이 가득했다.

라훌씨와 함께 일을 하면서, 당장은 싫은 일이라도 피하지 말고 부딪쳐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면 내가 괴롭고, 그렇게 일순간 피한다 한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면으로 부딪치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인도인 스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니, 여기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나와는 다르게 현지 스텝들은 보통 10~20년 동안 JTS와 함께 동고동락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아 든든하다는 걸 알게 됐다.

숙소를 준비하면서 이불과 담요를 거풍해야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온차로 인한 안개가 아침이면 거의 비처럼 내렸다. 인도의 기후를 잘 모르고, 또 일의 순서를 잘 몰라서 안개가 없이 따뜻한 11월의 좋은

거풍 시기를 놓친 게 아쉬웠다. 그러나 내게 남겨진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만 할 수는 없었다. 처음 라훌씨와 단 둘이서 이불 거풍을 시작한 날, 태양은 뜨겁고 담요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어차피 하는 일, 두 팔을 높이 들고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러 돈 내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했었는데, 이까지 담요 몇 백 장 빨랫줄에 너는 일 정도야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 신나게 일을 시작했다. 몸을 쭉 펴고 두 팔을 높이 들어 호흡과 함께 재빠르게 담요를 널었다. 그날 따라 심하게 부는 바람에 한껏 날리는 담요의 펄럭임과 함께 옥상에 서 있는 내가, 꼭 리얼리티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져 재미있었다.

아직 인도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몰라 서투르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싯타르 하우스 대청소를 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힘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것처럼 일 또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서툰 인도 말 만큼이나 부족한 리더인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예스 시스터”라고 흔쾌하게 일을 맡아 척척 처리해 주는 비제이씨도 있어, 어느새 인도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대하는 내 마음에 존경과 감사가 벅차오름을 느낀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피 인디아!”



땀뿌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나리와 땅갈에서 되짚어 본 JTS의 꿈

- 라나오 델 노르테 지역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지난 2007~2008년 JTS는 민다나오 섬 서북부 라나오 델 노르테 주 무나리와 땅갈 지역 다섯 곳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했다. 2008년 2월 이 지역에서 돌연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재 공급 등 프로젝트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이듬해가 되어서야 학교 문을 연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0월 방사모르 평화 협정 초안이 타결되면서 이 지역에도 평화와 안정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듯하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박영일 활동가

덜컹, 덜컹... 차를 타고 '무나리'와 '땅갈'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인근 해안가 도시인 '마이아고'와 '콜람부간'에서 비포장 산악 도로를 따라 15 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서야 무나리 군과 땅갈 군에 각각 이를 수 있었다. JTS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위치한 부키드논 주 리보나군만 해도 중심 거리는 나름 '하이웨이'라 불리는 국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농산물과 건축 자재를 잔뜩 실은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는데, 90% 이상 무슬림 지역인 이 두 지역은 예전부터 이슬람 비정규군의 분쟁이 잦아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그나마 최근에 주 도로를 중심으로 포장공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들 동안 안내를 도와주신 도동 반도호씨는 무나리 군청 계획개발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공무원이자, 예전 JTS의 라나오 델 노르테 지역 코디네이터이다. 2007~2008년 이 지역에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JTS 공용 차량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무슬림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타야 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JTS의 여러 선배 활동가들과 호흡을 맞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다.

무나리 군 시가지인 '땀부'를 거쳐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은 땀뿌란 분교이다. 유치원과 1, 2학년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 합쳐도 총 학생 수가 겨우 64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고학년 반이 없어서 인근에 사는 고학년 학생들은 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진 빵가오 초등학교까지 통학해야 한다. 그나마도 학생 수 55명당 한 명의 초등 교사를 파견한다는 필리핀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제 막 교육대학을



이번 답사 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도동 반도호(왼쪽에서 두 번째)와 무나리와 땅갈 MPDC 소속 공무원들

졸업한 23살 나시바 알리 선생님이 이 학교의 유일한 정규 교사로 파견되었고, 유치원 등 다른 학급은 젊은 남자 자원봉사자 선생님 한 분이 맡아 가르치고 있었다.



방사모르 개발기구 지원으로 설치한 마을 물탱크

학교를 나온 후 땀뿌란 바랑가이 캡틴(마을 이장)이 지역 명물인 바나나에 카사바 전분을 묻혀 튀긴 '딱뽕'을 대접하여, 일행과 잠시 요기를 하고는 마을을 빠져나왔다. 마을 어귀에서 방사모르 개발기구에서 지원해 준 물탱크를 보았는데, 수원지 설정이 잘못 되었는지 건기에는 물이 말라 사용할 수 없고 1년에 고작 3개월 정도인 우기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마을에서 차로 4~5km 정도 나가다보니 험준한 산 중턱에 작은 군사 요새가 보였다. 과거 이 지역에서 명성이 높았던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라몬 장군이 주둔했던 '필라르 요새'라고 한다. 평화 협정 이전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정부군과의 교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아무나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이슬람 모로 해방 전선 라몬 장군이 주둔했던 필라르 요새

두 번째 방문한 지역은 '뽀돌룬안'으로, 지역 언어인 마라나오어로 '경계'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마을 입구에 들어올 때 보이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두 경계를 넘어 '라나오 델 수르' 지역이 된다고 한다. 마침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교사 운영 위원회(PTA)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2008년 학교 증축 당시 JTS를 도와줬던 마을 면장 까물론씨가 멀리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데, 인상이며 손아귀에서 느껴지는 힘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참전 경험이 있는, 전직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지휘관 출신이다. 내후년에 방사모르 평화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를 염원한다는 그는,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과 학교 텃밭을 가꾸고 학교 담장을 만드는 등 마을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교 앞에서 까물론 면장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은 마뽀빠이 분교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모두를 합쳐 총 학생수가 51명인데, 학년에 따라 반을 나누지 않고 기독교와 이슬람 등 종교에 따라 학급을 구분하여 통합 학년 수업을 하는 것이 특이했다. 이슬람의 기초 종교 교육 기관인 '마드라싸'를 제외하면 종교에 따라 어떠한 교육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필리핀 교육 환경에선 매우 이례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학교 별 관 건물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린다오 선생님은, 학교에 들어온 군인들은 선생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며 항의를 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이제는 그런 일

이 없지만, 최근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자주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이들도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걱정을 털어 놓았다.



최근 잦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다는 마룬독 마을 전경



린다오 선생님(아랫줄 가운데)과 마담빠이 분교 학생들과 함께

린다오 선생님은 내년에는 평화와 안정이 완전히 정착하여 군인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모든 농부들이 홍수 피해 없이 풍작을 이루기를 신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득 방사모르 평화 협정으로 인해 라나오 델 노르테 지역에 모처럼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정착된 이 때, 이곳 무슬림 지역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에 빛을 찾아주는 것이 JTS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 학교에서의 첫 수업
- “마을에 학교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지붕 공정이 완료되어 학교의 형태가 잡히자,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학교지만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박용대 활동가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벽돌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지붕을 얹고 미장을 마무리하여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 어느덧 학교 느낌이 물씬 납니다.

한국에서 3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라오스에서는 9월 개학과 동시에 첫 학기가 시작됩니다. 도색이 마무리 될 무렵 학교 선생님이 “9월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데, 혹시 공사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첫 수업을 새로 지은 학교에서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공사 기술자에게 안전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하니, 교실은 대부분 마무리 되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수업이 가능하다고 전하자 “아이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라며 선생님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천장과 화장실, 운동장, 세면대 정도여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조금 더 빨리 공정을 마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개학 전날, 마을 이장님이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는 “개학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뛰어놀면 다칠 수 있으니, 못이 박혀있는 목재를 한쪽으로 모으고 위험할만한 물건들은 다 정리합시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덕분에 운동장에 널려있던 못 박힌 목재들이 금세 한쪽으로 정리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침내 학교가 처음으로 진짜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자 아이들이 신이 나서 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흙 위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정말 신나게 놀입니다. 어느새 학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표



정도 무척 밝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어떤 치유 효과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라오스는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로, 이곳에서는 ‘탁발’문화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6시가 되어 스님들이 마을을 돌면, 주민들은 기다렸다가 찻쌀밥이나 간식을 공양하고, 스님들은 그런 주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마을 단위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에서도 탁발을 하는데, 마을에서 하는 탁발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스님들이 탁발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끝에 앉아 있고, 스님들은 공양 받은 음식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날의 탁발행진을 마칩니다. 라오스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라오스는 욕망이 멈추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과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에 익숙한 이곳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라오스JTS의 한 해를 돌아보면, 사업에서 활동가의 생활까지 아주 작은 부분 어디에도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2014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배려’입니다. 후원자 여러분, 마을 사람들, 한국 JTS 본부, 활동을 마치고 떠난 활동가들 등, 많은 분들의 배려로 라오스JTS의 2014년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꼭농부아 마을 학교건축 사업’은 아직 몇 가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놀이터, 식수대, 전기공사가 남았고, 2015년 초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지만, 단지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슬



퍼할 필요 없다는 위안을 스스로 해봅니다.

아마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원을 받는 이들이 후원에 대해 느끼는 감사와 그로 인해 느끼는 행복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JTS와 활동가들은 그 마음을 더욱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께 2015년 한 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콕농부아 마을 이장 루완** |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콕농부아 마을 이장 '루완'입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콕농부아 마을에 이렇게 예쁜 학교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하러 가고 놀러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마을 주민들도 다들 좋아합니다. 예전에 태풍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옆 마을 학교에 다녀서 아이들이 힘들어 했는데, 학교가 지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이 특히 좋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콕농부아 학교 란 선생님** |

안녕하세요, 학교 선생 '란'입니다. 학교가 지어지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도 새로 지어진 학교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생겨 더 기쁩니다. JTS와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콕농부아 학교 건축 기술자 분짚** |

안녕하세요, 학교 공사 기술자 '분짚'입니다. 학교 공사는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활동가들이 도와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늦어져서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



길벗, 떼심으로 하나되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길벗과 함께한 2014년 연말 거리모금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의 방송인 봉사 모임인 '길벗'은, 노희경 작가, 배종옥, 한지민, 박진희, 윤소이, 김병조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벗은 2006년부터 JTS와 함께 매년 5월과 12월에 서울 명동에서 제3세계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0일에도 어김없이 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던 이번 캠페인을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실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길벗 성현미



캠페인이 한 달 보름 남은 11월 3일, 모금 캠페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짧은 행사지만, 길벗은 모금 팀장님(길벗 박경숙)의 진두지휘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무대와 장소 섭외부터 출연할 연예인분들도 체크하고, 필요한 물품 확인해야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모금의 주역인 미녀 삼총사 배종옥, 한지민, 윤소이 님이 참석하신다고 했고, 외환은행 본점의 협조도 얻었습니다. 길벗들 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너무 걱정 마라. 초청 강연회는 법륜 스님만 계시면 되고, 모금날에는 모금함만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면 천하무적입니다.

12월 1일, 행사 장소 사전답사를 다녀온 준비팀은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물품팀은 빠진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량을 체크해 놓고, 진행팀은 JTS와 업무를 논의하면서 홍보와 운영 인력을 꾸리고 모금 위치를 확정합니다. 교육팀은 사전 모금 교육을 위한 자료도 준비하고, 당일 초대가수 섭외를 위해 직접 전화를 드려 행사 취지를 설명 드립니다. 다들 선뜻 재능 나눔으로 기꺼이 마음을 내주십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2월 20일 행사 당일, 전날 밤에 눈이 오고 아침이 되자 끄떡 없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맡은 길벗이 모금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서다 빙판에 넘어져 다치

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윤소이님도 몸이 아파 못 나오신다 합니다. 다들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째 사회를 봐주시는 명 콧비, 김병조 교수님과 그 아드님인 김형주님이 나서 주시고, 길벗 1기 때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모금에 참여해오고 계신 ‘모금의 여왕’ 배종옥님이 행사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배우 한지민님은 할머니가 주셨다며 천원과 만원짜리로 가득 찬 모금함을 안고 환한 표정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김현준님과 최태환님, 서우진님, 백승도님, 신지호님, 차종호님 같은 조각 미남 배우들도 모금에 참여하여 추운 겨울의 명동 거리를 훈훈하게 데워 주십니다. 이젠 다들 한 가족같습니다.

무대인사 후 함께 웃으며 모금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배우 최문경님과 임세미님은 JTS 홍보부스로 달려가 후원 회원이 되어 달라고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모금에 처음 참가한 아이돌 그룹 헬로비너스 친구들은 사전 교육에 참가하면서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미 후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맛썬

모금을 위해 길벗들이 모두 거리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과 추운 날씨에 무대가 텅 비어버립니다. ‘어쩌나... 너무 추운데 모금이 잘 될까?’하는 생각이 앞섰지만, 가수 난아진님, 임현정님, 정가영님, 팝클래식 싱어 진정훈님 등 여러 분들이 나서 무대를 노래로 채워주십니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추위에 아랑곳없이 따뜻하게 울려 퍼지니, 모든 것이 기우였습니다.

모금이 끝난 후 액수를 확인해보니 무려 13,618,690 원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길벗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희경 길벗 대표님의 감사 인사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사람도 없고 모금이 힘들겠다 했지만 아닐 거다. 봉사자들이 많지 않았느냐. 많은 봉사자들의 힘이다.”

네 맞습니다. 떼심으로 해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친 길벗들의 무섭고도 아름다운 힘을 또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선물한 춘천 서상초 아이들 춘천 서상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함께하고 글쓰기 홍순화 활동가

춘천에 있는 서상초등학교로 후원금 전달식을 하러 내려가는 길. 학교에 다가갈수록 많은 눈이 내리는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가 생각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먼저 학교에 가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에 내 발자국을 새기던 옛 추억에 젖게 하는, 그런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 서상초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작품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아 마련한 수익금과 '희망 나눔 장터'에서 마련한 수익금을 모아, 1,844,200원이라는 돈을 마련하여 JTS에 후원했습니다. 전교생이 68명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마련한 것을 보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그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이, 모은 돈의 쓰임을 알게 된 올해에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르게 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수익금의 50%를 일괄적으로 냈었지만, 올해는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했음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후원금이 더 많아졌다는 말에 아이들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난해 아이들이 마련해 준 후원금은 비바람만 겨우 면할 정도의 흠바닥 학교에서 공부하던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책가방을 선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전해 준 후원금은 2013년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으로 파괴된 교실 6칸과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과 뜻 깊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눔 문화가 전국 학교에 퍼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서상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건고등학교 기부금 전달식

함께하고 글쓰기 홍순화 활동가

지난 12월 18일, 남양주 진건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진건고등학교 학생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매월 거리 모금을 진행해왔고, 연말이 되면 그동안의 모금액을 JTS에 전달해왔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하신 JTS 김기진 공동대표님의 인사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JTS의 사업을 소개하고 모금액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건고등학교

1학년 11반의 35명 학생들이 꾸준히 거리 모금을 통해 모은 모금액은 총 1,197,960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꾸준히 진행한 모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지구촌의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은 학생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실제의 행동으로 지구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전해 주는 진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생들을 앞에서 이끌어주신 박세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산초 6학년 '아나바다'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진정한 나눔에 대해 배우다

함께하고 글쓰기 철산초교 전교 회장 임도유

철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까지 9시간에 걸쳐 <환경문제와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주제통합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주제통합 학습 중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동참 활동으로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과정이 있는데,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활동을 통해 각

자 얻은 수익금 중 50% 이상을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6학년 각 반에서 기부한 금액은 총 514,750원이었습니다.

이 모금액을 가지고 각 학급 대표 8명과 전교 회장, 부회장 등 10명이 어떤 구호 단체에 기부 할 것인가를 토의한 결과, 기아·질병·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JTS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학생들 스스로도 뿌듯해 하며 활동에 큰 의미를 두었고, 전교 임원을 포함한 4명의 학생들도 대표로 우체국에서 직접 송금하여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선린인터넷고 세계시민교육을 마치며

함께하고 글쓰기 홍순화 활동가



2014년 한 해 동안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JTS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은가비'라는 별칭을 쓰는 JTS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있는 동아리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은 일요일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열리는 거리 모금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 차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몰입과 호응이 심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 효과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낭비된 물도 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조금씩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거나, '깨끗한 물을 쓰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껴 써야겠다.'라는 학생들의 소감을 들으며, JTS 세계시민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활동임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계시민교육에 참가한 선린인터넷고 학생들의 생생한 소감을 옮겨보았습니다.

거리 모금을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렇게 모금한 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 시야를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2학년 박대인 학생

애초에 구세군 활동 한 번 해본 적 없는 내게 거리 모금은 아주 생소한 활동이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친구, 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인사동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는 모금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금 구호를 진심을 담아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모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 길 가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아직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2학년 김규연 학생

전에는 모르고 있던 봉사 정신과 남을 배려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 세계 전체 인구의 20%가 80%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단 20%의 에너지로만 생활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탄소 배출권이 무엇인지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강연을 들은 뒤에는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찾아보았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지 못해서 들어온 거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오히려 JTS를 들어간 게 잘한 것 같다. - 2학년 김겨레 학생

나는 원래 봉사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JTS 동아리에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행복해 하는 영상을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도운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돕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두근거렸다. 그 뒤로 1학년 때부터 인사동으로 거리 모금을 다녔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일단 하고 나니 괜스

레 뿌듯해졌다. 그렇게 나는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진다 것을 깨달았다. 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남을 돕는 직업을 갖기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 2학년 한승헌 학생

봉사활동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 없는 나에게 JTS는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동아리였다. 애초에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봉사동아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걱정은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우선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은 거리모금이다. 봉사활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나로서는 굉장히 색다르고 뜻 깊었던 활동 중 하나였다. 사람들의 작은 정성이 한푼 두푼 모여서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한끼 식사가 되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장학금이 되기도 하며, 질병 걱정 없는 깨끗한 물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 1학년 장정현 학생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 동아리가 없어서 JTS에 들어왔다. 하지만 교육과 거리모금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모금하는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보고 지나쳤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 거리 모금을 하거나 처음에는 정말 수줍어서 말도 잘 안 나왔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몰입이 되었다. 돈이 많이 모였을 때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가졌다.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1학년 안재준 학생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모금을 하러 인사동에 갔다. 모금 활동을 하기 전 간단한 교육을 받고 팜플렛과 모금함을 들고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여러 번 하다 보니 수줍음과 시행착오는 차차 사라져갔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모금을 하면서 점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모금을 하면서 받은 1000원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한테 전달되어 하루의 끼니, 약, 책, 연필이 되어 도움이 된다니 신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으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전달되어 학교가 되고 아이들을 위한 약이 되는데, 평소에 1000원은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쓴 것 같다. 앞으로 돈을 소중히 다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 1학년 강민우 학생

학생들의 소감을 읽으며 또 다시 행복감이 젖습니다. 교사인 저도, 동아리의 친구들도 올 한 해 JTS와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이야말로 미래의 든든한 JTS 활동가를 길러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이 JTS 안에서 단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길 기원합니다.

전국 활동가 워크숍, 그 따스한 시간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지난 12월 13일 대전에서 전국 활동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 참석한 90여명의 사람들은 전국의 JTS 지역 활동가들입니다. 주말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했을 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전국 현장에서 거리 모금 캠페인과 저금통 분양 및 수거, 후원회원 확보 활동을 담당해온 분들이라 워크숍의 집중도가 남달랐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길벗 성현미

“전 세계 인구 중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인지 그 숫자 속에 그들의 삶을 봐야 한다. 옷을 싸게 사서 입을 때 방글라데시의 여공들의 저임금과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깃든 삶을 봐야 한다. 내가 입는 옷 하나, 먹는 음식 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삶은 좀 더 청빈하게, 공적 활동에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가는 것이다. 개인은 행복한 삶을 체득해 나가고, 인류사회에서 빈곤을 퇴치해 보자“



새삼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던 모두 강연을 듣고 나서, 오후에는 각 지역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 중에는 월 1회 정기 모금 캠페인을 ‘나 혼자라도 한다’는 독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 결국 월1회 정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지구촌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밥 한 숟가락도 더 먹이려는, 굶주리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룹 토의 시간에는 지역별 현황과 개선방안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열띤 토론을 거쳐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결과를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두들 박수 치며 공감하면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다른 지역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게 되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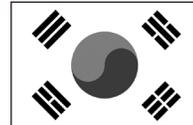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공통된 활동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방향이 서니 참 좋다. 우리 지역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전국 8개 지부 단위로 이런 워크숍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는 원 없이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이들의 웃음 속에 기쁨이 녹아있었습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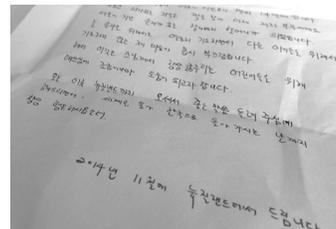
Korea 국내소식



제주 고관사 제량스님과 신도분들

1. 제주 고관사 제량스님과 신도분들의 후원

제주 고관사 주지 제량스님과 신도 50여 분이 지난 11월2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을 방문하셨습니다. 7년 전부터 제주도 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역사순례를 온 길에 정토회관을 방문하여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JTS에 후원금도 전달해주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편지

2. 뉴질랜드에서 전해온 사랑

뉴질랜드에 계시는 교포께서 JTS에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의 뉴질랜드 강연 중 전달된 편지에는 “늘 손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제 마음이 몹시 부끄럽습니다”라며,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 후원해주신 후원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창고에서 물자를 정리하는 봉사자들

3. 사하지부 두북 학교 정돈 봉사활동

사하지부 자원활동가 18명이 두북 학교에 있는 JTS 지원물자 창고를 정돈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창고 안에서 수혜자들에게 보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천을 비롯한 물자들을 다시 한 번 가지런히 정리하고, 학교 건물 내부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4. 안산 상록고 학생들 돼지 저금통 모금액 기부

안산 상록고등학교 함정연 선생님께서, 배부하신 돼지 저금통을 학생들과 함께 학교 동아리 발표회에서 수거하여 JTS에 기부해주셨습니다. 총 79명의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나눔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2014년 연말 전국 거리 모금 진행

기아와 질병, 문명을 퇴치하기 위한 JTS의 2014년 송년 거리모금 캠페인이 지난 12월 16일, 진해와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 90여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세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 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절기 교복 상의를 받은 학생들

1.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최근 들어 아침 인개가 더욱 짙어지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불을 때 난방을 시작하고, 아침마다 축구와 줄넘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풀어줍니다.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동절기 교복 상의도 지급했습니다.



강강술래 연습중인 여학생들

2. 강강술래 한 판 하실래요?

수지타 아카데미 여학생들은 요즘 개교 기념식 행사에서 공연할 강강술래를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한참을 뛰고 나면, 하루 동안 친구들과 서운했었던 일들도 웃음 속으로 싹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공부 모임을 시작한 지카바 병원 활동가들

2. 우리도 공부합니다.

지카바 병원에 대학생 봉사자들이 들어오면서 주회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공부 모임은 병원의 인도인 스텝인 까미슬씨와 삼부가 중심이 되어 <드레서>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에서 다물록 군수와 대화하는 이원주 대표

1. 다물록 사업장 모니터링

11월 22일 다물록 프로젝트 사후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역인 마카파리 고등학교, 다물록 보건소, 다물록 묘목장을 방문하여 지난 2013년 프로젝트 완료 후 시설 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무나이 군 땀뻘란(Tamparan) 학교 선생님, 학생들

2. 라나오 델 노르테 주 땅갈, 무나이 군 학교 모니터링

12월 11일 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무슬림 지역인 라나오 델 노르테 주 무나이(Munai)와 땅갈(Tangka) 군에 방문하여 2007~2010년에 JTS가 지은 초등학교 4곳과 탁아소 1곳을 모니터링하고 2015년도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알라원 학교를 방문한 박영일 활동가

3. 알라원 마을 모니터링

11월 8일 박영일 활동가와 이재곤 활동가가 1박 2일 동안 알라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2014년 3월 완공된 알라원 다리의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 학교는 건물 자체도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재파견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학용품을 받고 기뻐하는 실리폰 초교 학생들

4. 만타부 마을 크리스마스 행사 참석 및 문구류 지원

12월 18일 만타부 분교에서 열린 만타부 마을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여 전교생 136명에게 공책과 볼펜, 연필, 크리스마스 기념 손수건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JTS 농업기술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실리폰 초등학교 학생 489명에게도 문구류를 지원했습니다.

Laos 라오스



열심히 땅을 파내고 있는 기술자

1. 콧농부아 학교 화장실 공사

콧농부아 학교에서는 화장실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 2명의 기술자가 삼으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물탱크에서 화장실까지 호스로 연결해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 후 직접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2. 빗물받이 콘크리트 타설

학교 건물 전체를 둘러 빗물받이 공사를 하기 위해 마을 이장님을 필두로 2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사전에 틀 제작과 내부 철근을 엮는 작업을 마친 후, 기술자의 감독 하에 빗물받이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빗물받이는 빗물에 건물 주변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물의 수명이 오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받이 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주민들

3. 문과 창문 도색 작업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색과 활동가가 추천하는 색이 달라 주민들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 선호가 우선이기에 회색으로 도색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 도색 전에 나무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포질 작업을 배혜정 활동가가 혼자 돕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달려와 작은 손으로 활동가를 도와주었습니다. 현재는 도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창문 사포질을 돕는 아이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박종화, 권도영,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신예슬
필리핀	민다나오 : 김희자, 이재곤, 박영일 / 마라뽀 : 송지훈, 임희성,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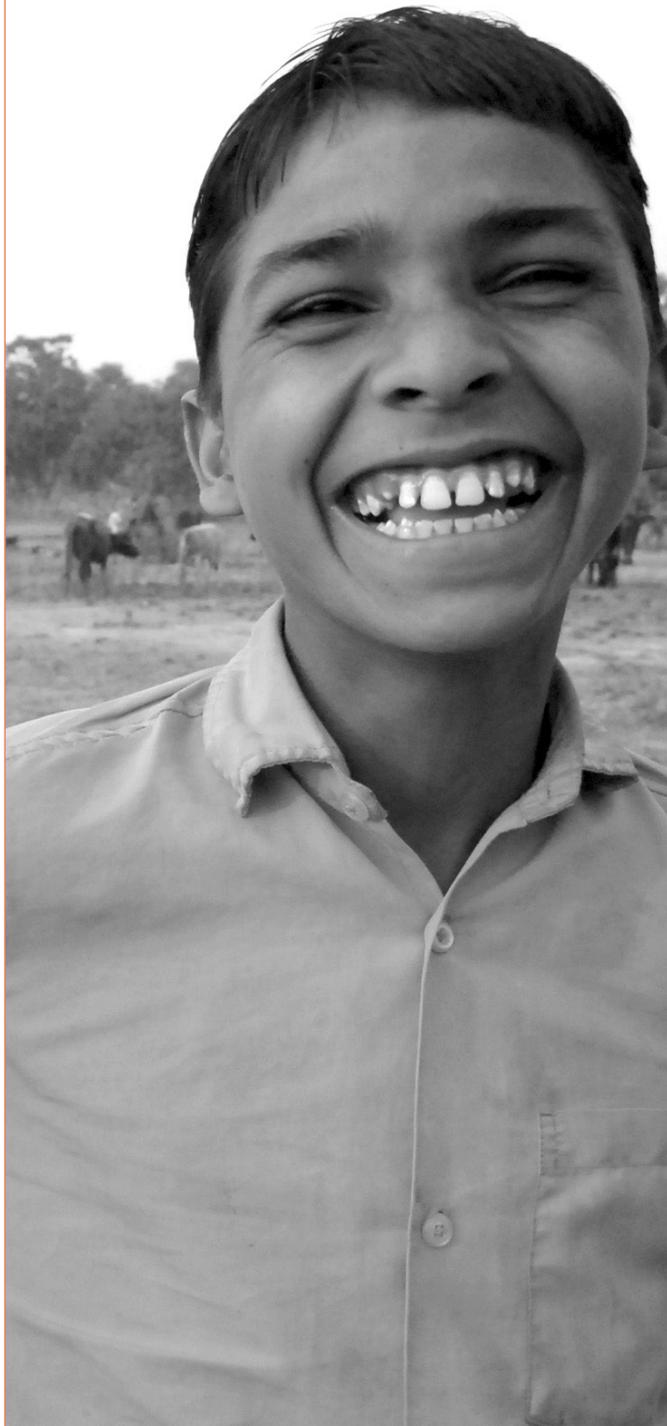
- 좋은 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박금주 -
- 부모님과 조상님모 이상하였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이도홍 -
-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민아 -
- 영가 추유호 극락왕생
- 추애자 -
- 작은 마음이라 부끄럽습니다.
- 제갈재문 -
- 10월13일은 (고)허삼석씨 49재입니다.인도 환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써주세요. 고맙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정주 -
- 유경화, 백운현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백년해로하세요.
- 유경화 -
- 이동원 생일맞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 이동원 -
- 입원기간 지인들이 주신 후원금을 보다 필요한 곳에 쓰고자 기부합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 조희옥 -
- 배고픈아이에게 한끼 식사를 대접합니다.
- 김미순 -
- 함께 행복한 세상^^
- 박완임 -
- 배우고 싶은 인도 및 제3세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혁주 -
- 작은 움직임이 모여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 김창운 -
- 아빠,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 안정현 -
-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않게 원하는바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자합니다.
- 최제익 -
-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쓰이길 바랍니다.
- 김혜경 -
- 항상 투명하게 후원금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성희 -

해외JTS 후원금

(2014. 10. 01. ~ 2014. 11. 30.)

미 국 J T S 2014년 9월

권화정	\$100.00	SE HEE KIM	\$100.00
김부연	\$1,000.00	SEUNGYONG PARK	\$30.00
김숙영	\$100.00	SOOGIL JEONG/	
김윤진	\$70.00	HEESUN HONG	\$50.00
김학노/김순미	\$100.00	TIP J ENTERPRISES	\$1,200.00
김혜진	\$50.00	WON T KIM/JEONG	
뉴욕정토회 저금통	\$91.00	OK KIM	\$100.00
무주상	\$92.00	YOUNG TAE CHOI/	
박경배	\$80.00	SUNG SOON KIM	\$200.00
인완일	\$1,000.00	ZEN ZEN BEAUTY	
월호 한의원	\$330.00	LLC	\$200.00
유승목	\$20.00		
이동근	\$140.00		
이동영	\$400.00		
이우봉/이노숙	\$60.00		
이종경	\$300.00		
이중순/한성후	\$100.00		
이중순/한성후	\$100.00		
이진아	\$300.00		
이혜영/이하늘/이기람	\$1,296.00		
임선희	\$50.00		
정제니	\$50.00		
최명숙	\$1,000.00		
최수영	\$60.00		
하원백/하정숙	\$700.00		
하장연	\$60.00		
JONGSIK M AHN/			
MIYOUNG M AHN	\$10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10.00		
LA JUNGTO 가라지세일	\$1,105.00		
LI, NY강연	\$151.00		
MICHAEL W YANG	\$62.00		
MIGYOUNG KIM	\$150.00		
OJSIK JO	\$1,00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4. 08. 01. ~ 2014. 09. 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릉

강릉법당 44,100 박동호 19,140 신영순 20,000 심종란 65,550

강서

강서법당 231,290

거제

김미옥 31,220 김은숙 35,510 박승행 19,780 방지은 40,000 원마트 77,350 원마트 75,750 유봉준 26,090 윤강수 20,220 이단형 18,400 이분숙 31,140 이영미 25,990 이윤희 34,080 진지희 8,650

경산

변영숙(손유리) 14,800 미인명 10,180 백옥교 17,310 신향철 94,000 윤용희 68,750 이영희20,560 이춘희(이소정) 11,980 이춘희(이유환) 17,330 정영미(김정재) 44,650 최진홍 26,400 최진홍(하정수) 14,950

경주

권기영(김병권) 12,790 권기영(원종석) 21,400 권인숙 28,400 김희경(한의원) 44,710 무명 15,570 무명 23,000 정귀조 28,740 최영애 34,530

광명

김희숙 21,100 이명옥 11,970 이재민 27,970 이재민 26,260 황순덕 10,610

광주

1학년7반친구들 10,950 1학년8반친구들 9,910 광주법당 19,050 광주법당 30,500 김나영 46,480 김상순 47,300 김지연 10,840 김혜자 3,520 무명 11,030 무명 12,700 무명 1,060 손효진 10,780 우송이 43,300 이미숙 41,210 이영희 72,310 이철구 24,290 임중석 16,311 조영귀 14,529 조영귀 12,040 조은지 13,500 조종진 11,480 최정현 3,740 최하연, 조해연, 허소영 7,310

기장

김명자 10,000 김영숙 28,000 김영애 8,890 김정영 22,190 김홍임 20,000 안인숙 12,740 유승자 4,190 이상옥 10,500 정희정 6,170 조원희 52,800 천명희 13,730 허춘자 12,230

김천

차상연3개 101,860

김해

김경옥 41,940 김민제 21,180 김민재(김선아) 13,880 박은주 14,820 이삼순 8,080 조미경 2,930 최덕희 25,980

구미

고미숙 53,130 구영희 31,210 김정화 60,000 김진석 28,620 아은초등1-2 12개 91,170(김동건 6,840 김영탁 9,710 무명 9,640 박엘라 13,280 박은빈 7,310 유찬 5,180 이서린7,090 이수빈 5,140 이창원 4,480 정사후 5,410 주연우 8,230 채영 8,860 표인숙 26,610 양지현 33,640 이경숙 17,430 이미영 19,550 이승희 14,880 이현숙 24,830 임주원 60,570 최성선 18,730 최화심 25,870 하경희 49,200 허혜 17,360

남양주

김무로 43,240 무명 15,800 박명희 14,240

내서

김근희 45,130 무명 10,730 무명 15,040 무명6개 54,810 박경자 24,500 박영숙 35,950 서귀남 13,130 이명자 42,740 임하니 9,250 장득이 10,000 장정화 12,000 정복기, 추정자, 최유정, 제동순, 김희연, 박영숙, 정영숙, 서주영, 이현희, 김말집, 김미옥, 정세은, 배수진외8명 303,240 조수빈 37,340 최숙자 6,020 허남 13,580 허호건 10,940

노원

무명 25,130 무명 33,660 무명 11,890

달서

달서법당 599,710 달서법당 75,510 달서법당 1,190 달서법당 60,880

당진

당진법당 88,710

대구

강소애 46,680 구동주 15,950 권송자 7,480 권용혜 31,220 권혁준 9,020 금지현 10,930 김덕근 65,400

김민숙 16,600 김상현 83,620 김성희 23,750 김순주 17,400 김순화 35,920 김예영 12,290 김재희 10,240 김현미 25,850 김현숙 79,460 도금숙 37,570 류영주 25,250 무명 20,620 무명 15,540 무명 6,620 무명 12,010 무명 91,640 무명 47,960 무명 54,140 박강민 28,650 박시은 2,060 박연희 58,380 박유빈 21,620 박지한 14,600 박진옥 43,370 변서영 12,940 성경옥 28,690 성경옥 13,690 송민규 26,710 안선영 51,780 안정미 23,490 윤다정 8,400 윤진숙 53,110 윤진숙외2명 43,990 이영주 11,420 이재웅 23,710 이준호29,930 이현호 38,700 이훈안 10,280 장금주 14,830 전병찬 209,810 전병화 19,800 전수아 8,320 정다령 13,210 정용수 21,830 정유자 8,630 정익현 17,200 조계량 76,000 조지애 30,270 최윤경 19,910 하숙희 20,720 학산중학교 158,200 한정우 75,370 허현행 14,310

대연

대연법당 29,930

대전

김경옥 28,770 무명 20,220 무명 5,520 무명 33,990 양연구 19,690 정미자 20,950 정숙자 9,930 한원숙 19,330

대전부사

김미숙 34,030 김미정 12,400 김중덕 15,770 김현수 13,880 무명4개 92,800 박예진39,520 박진영 100,950 오선의 46,350 이정선 33,840 이해경 32,740 임정자 9,730

동래

강혜원 28,300 강희준 30,390 구희경 17,680 김경미 21,750 김경숙 17,490 김경희 21,980 김무남 19,350 김미경 23,160 김미숙 31,420 김민정 19,480 김복화 16,150 김순열 7,090 김필선 17,070 노경윤 4,890 무명 58,810 무명 14,350 박경혜 10,960 박광희 29,160 박광희 19,710 박영숙 16,690 박상우 17,570 박소정 18,740 박지영 30,950 배종숙 15,530 서경선 7,910 심학순 26,100 여영화 16,550 오은선 37,000 유영희 12,240 이경녀 31,380 이삼순 25,030 이동현 23,440 이리규 13,210 이세벽 25,420 이승주 11,130 이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